

書 評

- Заславская Т. И., Рывкина Р. В. 1991. Социоло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и. Очерки теории.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 Радаев В. В., Шкаратан О. И. 1996.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 Тихонова Н. Е. 1999.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Москва: РОССПЭН.

현대 러시아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변화

최 우 익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원

1. 사회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연구 현황

최근 몇 해 동안 러시아 사회학자들은 현대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급·계층 구조(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에 대해 거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시켰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러시아가 심각한 체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사회가 어떠한 사회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속에서 어떠한 집단의 기본적 이익과 집단들 간의 마찰이 표출되며, 이것을 기초로 러시아에 어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해를 얻고자하는 것은 아마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연구는 지난 70년간 유지되었던 소비에트 사회의 이상화된 신화의 파괴와 함께 과거 사회가 정말 어떠한 사회 집단들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이지 개혁 과정에 있는 현대 러시아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 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 과거 소비에트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아르쭈난(Ю. В. Артюнан), 고르돈(Л. А. Гордон), 자슬랍스까야(Т. И. Заславская), 끌로뽀프(Э. В. Клопов), 나지모바(А. К. Назимова),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 리프끼나(Р. В. Рывкина), 슈까라탄(О. И. Шкаратан)과 같

은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현대 러시아 사회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소비에트 사회의 주요 연구자들이었던 고르돈, 자슬랍스까야, 슈까라만, 라다예프와 더불어 벨랴예바(Л. А. Беляева), 골렌코바(З. Т. Голенкова), 이기뜨하냐(Е. Д. Игитханян), 라뻬(Н. И. Лапин), 스파리코프(Е. Н. Стариков), 쩌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 체르니슈(М. Ф. Черныш) 등의 학자들을 대표적 연구자들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과거와 현대의 사회 계급·계층 구조와 이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 계급·계층화 과정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에 할애되고 있다. 또한 연구는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의해, 혹은 때로는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며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물들 중에서 자슬랍스까야(Т. И. Заславская)와 리프끼나(Р. В. Рывкина)의 공동저작(1991), 슈까라만(О. И. Шкаратан)과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의 공동저작(1996), 그리고 쩌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의 저작(1999)을 통해 소비에트와 현대 러시아의 사회 계급·계층 구조에 대해 각 학자들이 어떠한 관점과 견해를 펼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단, 자슬랍스까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녀의 몇몇 논문을 더 추가하여 살펴볼 것임).

II. 소비에트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는 두 계급과 하나의 계층, 즉 노동자와 농민(집단농장원) 그리고 인텔리겐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평등하며, 단지 사회적으로 역할 분담된 관계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신화를 믿지 않게 되었다. 이 신화의 뒷면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데에는 러시아 사회학자들의 역할이 한 몫을 하였다.

자슬랍스까야(Т. И. Заславская)는 1980-90년대의 시기를 경계로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 관계의 연구 결과, 이전의 소비에트 사회는 세부적으로 78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Заславская, 1991: 407-410).

이 경제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고려되는 기준은 직업적 직무상의 지위(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должностной статус)이다.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소비에트 사회에서 이 지위는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의 양, 소속 사회 집단 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것은 사회적 노동 조직(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ая структура)의 문제이다. 즉, 사회적 노동 조직이 노동 집단들과 그 밖의 기능(예를 들어, 교육이나 군사)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부여된 각각의 역할에 따라 기능과 형성이 구분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련방의 사회적 노동 조직의 특수성에 의해, 그리고 여러 분야와 부서에서 노동집단들의 생활 및 활동의 조건이 세세히 분화되어 있는 소련방의 상황에 의해 이 사실은 소련방체제의 주요한 특징인 것이다.

그밖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들로는 가족경제 조직(семейн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사회적 지역 하부조직(соци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подструктура), 인종인구학적 하부조직(эт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подструктур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경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며, 결국 소비에트 사회를 평등한 관계가 아닌 불평등한 관계의 사회 집단들로 구성하였다(Заславская, 1991: 395-396).

위의 기준들을 고려하면서 90년대 초반의 저작(Заславская, 1993: 3-4)에서 자슬랍스카야는 개혁 이전의 소비에트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큰 범주의 네 가지 기본적 집단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즉, 이 집단들은

- 1) 지배 계급(‘노멘클라투라(номенклатура)’),
- 2) 관리 집단과 일부의 인텔리겐차를 포함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중간 계급(средний класс),
- 3) ‘피고용 근로자들’, 즉 노동자, 집단농장원, 중·저 수준의 숙련도를 지닌 인텔리겐차로 이루어진 하층 계급(низший класс),
- 4) ‘사회적 밑바닥층(социальное дно)’이다.

자슬랍스카야는 시장경제 개혁이 시작되면 이러한 사회 계급·계층 구조는 불가피하게 파괴될 것이고, 이것은 병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에 필요한 현실적인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시장에서의 우월한 경쟁능력이 국민들에게 부재한 상태에서, 권력적 자원을 결정하는 직위, 근로자가 종사하는 부문, 그의 기업의 특수성, 근무기간과 연령에 밀접하게 연관된 ‘기간 요원’ 종사자의 소속 등이 현실적인 재산의 분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소비에트체제에 익숙한 수백만의 국민 집단은 시장경제 개혁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슈까라탄(О. И. Шкаратан)과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의 소비에트 사회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이론적 전제에 서있다. 그들의 개념은 한편으로 소비에트 형태로 이루어진 사회들의 비계급적 성격에 대한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즉, 슈까라탄과 라다예프는 계급이 아닌 신분 구조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사회의 ‘봉건적’ 성격에 대한 사상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러한 형태의 사회들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주로 다양한 수준의 수입에서가 아니라 생활상의 지위와 특권에서 나타난다. 특정한 분야들에나 혹은 종합적인 특혜를 자신의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대기업들에는 신분 구조적인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다. 신분 구조 내부에는 비금전적인 상호 의무 시스템(보호 체계나 가족적 일가와 유사한 체계)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슈까라탄과 라다예프는 소비에트 사회를 비계급적 국가소유주의(некла

сское этакратическое) 사회로 특징지었다. 그들은 두 개의 지배적인 문명 형태를 나누었다. 하나는 ‘유럽적’ 문명으로써 사적 소유와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가 우월한 곳이며, 또 하나는 ‘아시아적’ 문명으로써 시민사회와 사적 소유의 부재 속에서 국가 헌법 구조의 전제성이 존재하고, 개인성의 억압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우월한 곳이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내부에 이 두 가지 원리가 혼합된 유럽 국가 였다(Радаев, Шкаратан, 1996: 259-260). 그리하여 슈카라탄과 라다예프는 ‘권력의 분배’를 사회 계급·계층화의 기본적인 지표로 삼았다(Радаев, Шкаратан, 1996: 268-269).

국가소유주의 사회의 현실적인 계층 시스템을 형성하는 공식적인 서열을 슈카라탄과 라다예프는 상속된 서열과 획득된 서열로 구분하였으며, 그리고 후자는 일의 위치와 관련된 개인적인 서열(персональный ранг)과 단체적인 서열(корпоративный ранг; 조합적인 서열)로 다시 나누었다. 그러한 계층의 시스템에서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 화폐 지수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계의 물질적 측면은 화폐 등가물에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로 여러 가지 수준과 형태로 전파된 특권(привилегия)의 형태에서 획득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적 서열과 단체적 서열은 그 사람의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에 합당한 물질적 측면의 특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특권의 존재는 소비에트 사회의 단체적 성격(소비에트 사회에서 사회 집단 사이의 관계는 많은 점에서 단체적 주체의 상호행위에 의해 대행된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각 단체 내부에는 자신의 계층 시스템이 작동했는데, 내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모두에는 세 가지 계층이 존재했다. 즉, 이 계층들은

- 1) 권력도 가지고 있고 특권도 가지고 있는 관리 계층(управляющий слой),
- 2) 권력은 없지만, 일정한 이득을 얻기에 충분한 권리를 지닌 실행자 계층(слой полноправ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 3) 권력도, 이득도 가지지 못한 비특권적 실행자 계층(слой не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이다(Радаев, Шкаратан, 1996: 273-277).

이러한 위계의 합법화는 부권주의 체계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체계에서 “지배 계층은 아주 목적인 특권을 가지면서 실행자들의 노동 기여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그들의 생존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부권주의적 교환 속에서 보다 숙련된 일부의 중간 계층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결국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 분화의 재생산은 자신의 특권의 차이를 결정하는 개인적 단체적 서열의 차이에 기초한 불균형적인 사회적 교환의 형태를 띤다(Радаев, Шкаратан, 1996: 280-282).”

보는 바와 같이 슈카라탄과 라다예프의 1980-90년대 시기를 경계로 한 소비에트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구상은 전체적으로 마르크스적 전통보다는 베버적 전통의 방향에서 조망되면서, 베버의 3위 일체중의 하나인 ‘권력적 지위’ 개념을 적용했다. 또한 자신들의 근본적 견해의 하나로써 그들의 중요한 특징

은 문명의 독특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소비에트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를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방법론들에서 자슬랍스까야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바로 불평등한 경제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보면서, 이 원인의 발생을 ‘어떤 직위로 어느 노동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가’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찾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들은 소비에트 사회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경제적 불평등 관계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슈까라만과 라다예프는 소비에트 사회를 ‘비계급적 국가소유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한 계급 관계는 일차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국가의 체계’에서 권력과 특권을 표시하는 신분이나 직위가 가장 중심적인 계층화의 기제이며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양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계층 구조를 규명하는 경로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슬랍스까야는 사회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 관계로부터 찾고 있는 바, 이것은 마르크스적 전통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슈까라만은 경제 불평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불평등이 권력의 소유 정도를 표시하는 지위(직위 혹은 신분)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바, 이것은 또한 베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관계이건 권력 관계이건 직무상의 지위(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должностной статус)를 불평등 발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비에트의 현실 속에서 경제 관계와 권력 관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나타난다. 경제 관계에서 최고의 직무상의 지위를 가진 자는 이미 최고의 권력을 보유한 자이며, 권력 관계에서 최고의 직무상의 지위를 가진 자는 경제에 대한 관리권과 나아가 많은 부의 획득 가능성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양 방법론이 ‘직무상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 모든 불평등 발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는 데에 동의한다면, 나머지 문제 즉, 불평등이 경제적 관계의 ‘지위’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인지, 권력적 관계의 ‘지위’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인지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관점의 차이로 국한시켜 볼 수 있다.

실제로 쯔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는 위의 양 방법론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조합-신분적 사회 구조(корпоративно-сословная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의 큰 틀에 의해 주어진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특히 ‘피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슬랍스까야의 ‘직위’와 ‘부문’이 중요한 계급 구분의 기준이 된다고 언급한다. 쯔호노바의 견해에 따른 소비에트 사회의 계급·계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수십년 동안 소비에트 사회는 권력 관계와 소유 관계의 융합 속에서 건설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통적으로 사회를 계급들로 분할 - 국가로부터 독립

된 소유 주체의 존재를 가정하는 분할 - 한다는 것은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 비상품적 재분배 과정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자원 분배 통로의 통제에 대한 관계가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현실적인 기초를 구성하며, 따라서 사회 계급·계층 구조는 신분적 형태의 구조와 관련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1) ‘피관리자(управляемые)’: 즉, 서로 아주 상대적인 차이만 있는 평범한 종사자들이다(예를 들어 선반공이나 국가 부서의 의사나 혹은 트랙터 운전사나 이들 모두 동일한 국가 부서의 피고용 종사자인 것처럼).

2) ‘관리자(управляющие)’: 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와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은 보통 노멘클라뚜라(номенклатура)와 동일시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히 신분적이 아닌 일정한 부문에의 소속이 큰 의미를 띠는 조합-신분적 조직(корпоративно-сословная структура)이다. 이들의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근거 지워지며 정당화되었다.

2. ‘피관리자’, 즉, ‘평범한 국민들’의 지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직위(должность; 이것은 ‘관리자’와의 친밀한 수준과 관리 권력의 획득을 의미한다)와 부문(отрасль; ‘보통의’ 부문보다 상당히 더 많은 자원이 제공되는 ‘우월적’ 부문에서의 노동은 종사자의 수입 혹은 ‘특권’으로의 그의 도달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의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이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조합-신분적 사회 구조의 틀에서 어떠한 특권적 공동체로 그를 소속시키는가에 대해 결정한다. 또한 인간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지역과 형태도 지위의 결정에서 전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3.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로 인한 분화는 소비에트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을 수십 개의 집단들로 나누었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큰 범위의 계급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상대적으로 소수인 (국민 전체의 1/3 이하로 계산되는) 중간 계급(средний класс)에는 기업 지도부, 고숙련 전문가(무엇보다 창조적 인텔리겐차와 군산 복합체 종사자)가 포함되고, 또한 분배 체계에의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 집단에 있어서 그들 지위의 내부적인 비중은 각양각색이지만, 전체로서의 지위는 그들을 중간계급으로 포함시킨다.

2) ‘하층’ 계급(низший класс)은 노동자, 집단농장원, 대중적 인텔리겐차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을 ‘중간’ 계급으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동질적인 다수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 생활의 표준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바로 ‘표준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전되기 때문이다. 이 계급의 아주 빈곤한 일부의 사람들은 설령 이 계급의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수입을 가졌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형태의 삶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집단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3) 룬펜(사회적 밑바닥). 그런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Тихонова, 1999: 21-22).

이와 같이 소비에트 사회 계급·계층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세 부류 학자들의 견해는 각각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공통성을 찾아낼 수 있다. 첫 째, 공식적 사회주의 교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권력 관계와 경제 관계가 융합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직무상의 지위(직위, 신분)는 불평등한 계급·계층화의 기초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각 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견해와 관점은 이제 러시아가 ‘경제 개혁’의 이름으로 전환의 시대로 돌입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만들어낸 오늘날의 사회 계급·계층 구조에 대해서는 과연 각각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III.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

개혁의 시대는 러시아의 경제 영역에서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심각한 변동을 야기했다. 또한 사회 구조와 그 구성원 대부분의 사회적 지위는 몇 해 동안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과거에 동일한 직업적 그리고 지위적 집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러시아 학자들이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먼저 자슬랍스카야(Т. И. Заславская)는 새로운 계급·계층 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형성과 개조 과정이 자율화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종류의 사회적 지위가 나타나고, 낡은 사회 집단이 사라지며 새로운 사회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위 상승의 통로가 열렸고, 수평적 수직적 이동이 증대되었다.

둘째, 교육과 숙련도에 대한 사회적 위신과 힘이 증가했고,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국영 부문의 종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대규모의 지역적 공통성이 유지되었던 각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지역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 째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회적 지위의 성분에 대한 비교우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소비에트 사회의 계층화에서는 권력과 관리 체계의 위치와 연관된 행정적 직위의 범주가 결정적인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소유와 수입의 범주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Заславская, 1996 b: 18).”

자슬랍스까야의 연구는 전 러시아 사회여론 연구센터(ВЦИОМ)의 모니터 연구 통계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적 자료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대 러시아는 네 개의 기본적 계층, 즉 상층 중위(верхний средний) 계층, 중간(средний) 계층, 기본(базовый) 계층, 하층(нижний)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러시아 사회 위계의 총 도표에서 자슬랍스까야는 위 부분에 정치 경제 엘리트(политическая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элита)를 위치시켰고, 또한 밑 부분에 ‘사회적 밑바닥층(социальное дно)’을 포함시켜서 모두 여섯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모양을 만들어 냈다. 사회 계층의 분류를 위해 그녀는 10개의 변수를 이용했다. 즉, 기본적 취업, 기본적 활동의 종류, 취업 분야, 경제 부문, 조직의 규모, 직업적 직무상의 지위(수행하는 일의 현실적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평가에 따라), 교육 수준, 숙련도에 대한 자기평가, 수입 수준 등의 변수들을 이용했고, 이것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경제적, 권력적(관리적),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측정하면서 계층들을 분류하였다.

자슬랍스까야에 의해 연구된 사회 통계들은 모두 4개의 기본적 계층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초상을 제공해 준다.

‘상층 중위’ 계층은 대·중규모 회사의 소유자들이며, 대부분 자기 회사의 관리자이다(혹은 적어도 중간 정도의 관리자들). 그리고 90%가 청년과 중년 연령대의 남성들이다. 이들은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계층이다. 이들의 압도적 다수가 전문 교육을 받았고, 이 중에서 2/3는 고등 교육(대학교육 이상)을 받았다. 그들의 최저 수입조차도 ‘하층’ 계층의 열 배가 넘으며 ‘기본’ 계층의 6-7배가 넘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중간’ 계층은 소기업가, 반기업가, 다양한 기업의 매니저, 비즈니스 전문가, 고급 인텔리겐차, 노동자 엘리트,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력 조직(마피아 같은)의 종사자들이다. 그들 중의 3/5이 비국영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도 남성이며, 주로 중년 연령대이다. 이 계층의 교육 수준은 ‘기본’ 계층보다는 현저하게 높지만, ‘상층 중위’ 계층보다는 낮다. 숙련도에 대한 자기 평가는 가장 높다. 부의 수준은 ‘상층 중위’ 계층보다 상당히 낮으며, 14%는 심지어 빈곤하다(자슬랍스까야의 정의에 따르면, ‘기본’ 계층에서 빈곤층의 수는 46%에 달하며, ‘하층’ 계층에서는 심지어 65%에 달한다). ‘중간’ 계층의 사회적 만족도는 ‘상층 중위’ 계층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따라서 또한 그들은 개혁에 대해 덜 긍정적이다.

‘기본’ 계층은 숙련된 수행 노동에 종사하며, 주로 국영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중적 인텔리겐차, 산업 노동자, 농민, 상업 및 서비스 종사자들이다. 이 계층의 약 60%가 여성들이며, 대체로 중년과 중년 이상의 연령대이다. 단지 25%만이 고등 교육을 받았다. 생활 수준은 당

연히 낮으며 최근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들의 사회적 만족도는 낮으며,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다.

‘하층’ 계층은 가장 떨어지는 직업적 숙련도와 노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빈곤하다. 2/3가 빈곤층이고 1/4은 거지의 수준이다. 70%가 여성이고, 이들 내부에서 노년층은 중년층보다 세배가 더 많다. 이들의 다수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며, 심지어 1/3은 러시아에 독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Заславская, 1996 a: 7-15).

각 계층의 수는 1995년 말, ‘상층 중위’가 1.4%, ‘중간’이 28.3%, ‘기본’이 64.3%, ‘하부’가 6%이다. 몇 해 동안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변화에 대한 흐름의 방향성은 분명 시장경제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고, ‘상층 중위’ 계층과 ‘중간’ 계층의 수가 천천히 증가했다. 자슬랍스카야의 연구는 계층간의 사회적 분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현대 러시아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계층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불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층의 낮은 사회적 잠재력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그들에게 불만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은 주로 말로만 표현되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Заславская, 1996 a: 15).

슈카라탄(О. И. Шкаратаи)과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는 현대 러시아의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연구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납은’ 계층 모델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와 현대 러시아 사회 관계에 대한 부족한 통계 연구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연구 결과들은 예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 사회 변화의 과정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고정적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사회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곤란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나라(스웨덴,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 일어난 사회-경제 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하려는 수많은 시도들과 이러한 모델에 기초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징후로 러시아 발전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물론 무엇인가 특정한 문제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는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러시아적 자본주의에 대한, 즉 문화적 독특함과 축적된 인간적 물질적 자원을 고려하면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소유자-민주주의 사회(собственническ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의 러시아적 계급 구성에 대한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의 응답은 될 수 없다.

러시아에서 계층화의 낡은 형태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이전이 진화적이고 점진적인 전화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계층화의 위계는 낡은 집단과 새로운 집단을 하나로 융합하면서 이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금용자본으로 이루어진 ‘중앙(Центр)’의 권력 구조의 통일이

관측되고 있다. 중간 계층은 사회적 모자이크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경제 분야 구조와 취업의 직업적 구성의 변화를 배경으로 복잡한 사회 이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Радаев, Шкаратан, 1996: 311).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 집단들이 개조되고 있다. 먼저 인텔리겐차에 대해 슈까라탄과 라다예프의 견해에 따라 지적해보면, 시장경제제로의 이행은 러시아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대부분의 현실에서 보였던 인텔리겐차의 역사적 현상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즉, 많은 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계층 중립적인 특정 조직으로써의 인텔리겐차는 사라지고 이들은 영터리 전문가들이나 혹은 낙오된 낮은 사회 계층으로 분열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지식계급이 아닌 중소 기업가들의 계층으로 이제 이들은 나아가고 있다.

한편 사적 기업가 계층의 형성은 노동자 계급을 ‘사회의 주도 세력’이라는 관계 사이버 계급으로부터, 자신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주들과 투쟁할 권리를 되찾은 일치된 피고용 종사자로 변신시키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개인 차원의 부업에 대한 과거의 제한이 사라졌고, 한편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술자 및 비료 생산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자영농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과 사회 집단의 위치가 국가 권력 구조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자원 분배 시스템에 대한 근접 수준에 따라 정의되었던 위계 형태의 계층화로부터 문명 세계의 주요 형태인 계급적 계층화로의 이전은 아주 빠르게 완수되고 있다. 권력 중심의 관계는 이제 사적 소유 중심의 관계로 대체되고 있다. 기업가적 활동 혹은 적어도 사적 부문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지향성은 특히 젊은 층에게서 확고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회 경제적 미래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Радаев, Шкаратан, 1996: 311-312).

위에서 언급된 슈까라탄과 라다예프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비에트 사회를 권력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신분사회’의 성격을 지닌 사회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하의 ‘자본주의적 계급사회’로 이행하고 모습이 마치 이들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앙권력의 강화와 대금융자본의 형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가 계층, 노동자, 농민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모호한 인텔리겐차도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슈까라탄과 라다예프에게는 문명 세계로의 진입을 예고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하지만 러시아적 특수성에 대한 이들의 강조와 무분별한 서구 모델의 도입과 비교에 대한 경고는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찌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는 소비에트 사회의 조합-신분적 사회 구조와 현대 러시아의 새로운 사회 구조의 공존 속에서 계급·계층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그녀는 ‘과거의 것’이 ‘현대의 것’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이 일방적이거나 아무 방해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대응하고 반발하면서 스스로 재구성되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세밀히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경제 개혁이 진행되자 기존의 조합-신분적 사회 구조와 함께 새로운 계급 형태의 사회 구조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두 개의 경제 부문, 즉 국영 부문과 사적 부문이 나란히 존재하게 된다. 새로이 발생된 사적 부문에 있어서는 시장적 지위와 관련된 특징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국영 부문에 있어서는 권력 자원과 조합적 소속이 종전처럼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부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통 분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분모는 이제 물질적 부의 수준이다. 물질적 부의 수준에 따라 편성된 사회적 분화의 심화는 바로 과거와 새로운 사회 구조의 주요한 차이가 되었다. 이제 소비에트 형태의 계층 구조에서보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양극화의 범위가 수직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독자적 층의 분리가 발생했다.(Тихонова, 1999: 36-42).

사회 구조의 변화는 엘리트 집단과 보통 국민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엘리트 집단의 일부에 있어서 권력의 자원은 자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대중적 국민 집단에 있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관계와 구조에의 소속이 이제 새로운 사회적 지위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사회 구조의 변동 속에는, 일부의 국민은 마치 ‘개혁 이전의’ 시기처럼 여전히 계속 살고 있는 반면, 동시에 개혁에 적응하여 시장경제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질로 무장한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다른 일부의 국민이 출현하는 현상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 구조의 균형은 많은 점에서 보존되었고, 단지 중간 계급만이 이제 1/3이 아닌 최대 1/4이 되었으며, 소비에트 사회에서 2/3를 구성한 하층 계급은 두 개의 독자적인 집단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기본 계층’으로써 종전대로 러시아인의 다수를 포함하며, 그 곳에서 분리된 두 번째 집단은 새로운 ‘하층’ 계층으로 되었다(Тихонова, 1999: 273-275).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각 학자들은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대비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한편으로는 자슬랍스까야와 또 한편으로는 슈까라탄과 라다예프가 지니는 연구

관점의 유용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자슬랍스카야는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사회 구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시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경제적 영역의 범주에 계속 초점을 두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슈까라만과 라다예프는 러시아의 사회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주의를 돌릴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경제 개혁 초기의 환상이 깨지고 러시아가 결코 서구식 경제발전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지금, 러시아적 특수성을 되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짜호노바는 일견 절충적 관점을 가졌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이 그녀의 연구의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사회 구조에 대한 거시적 연구 방법을 보완하는 미시적 방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Заславская Т. И., Рывкина Р. В. 1991. Социоло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и. Очерки теории.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 Заславская Т. И. 1993.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к предмет мониторинга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2.
- Заславская Т. И. 1996 а. Стратифик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1.
- Заславская Т. И. 1996 б.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ып. 3.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 Радаев В. В., Шкаратан О. И. 1996.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 Тихонова Н. Е. 1999.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Москва: РОССПЭН.

최우익.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연구원. 경기도 의정부시 가남 3동 596-24.
Tel. 0351)876-2222. E-mail: wooikchoi@hanimail.com